



인권愛티켓 제3호

군산대 인권센터

은근어들은,
은근그럴까?

머리에 피도 안마른..
역시 어린 어들은~
아-응, 어려=어려~



좁혀지지 않는 세대 갈등 속 '혐오 표현' 이대로 괜찮을까요?

- * 미숙한 사람을 이르는
'~린이', '잼민이'는
아동 혐오 표현
- * '급식충', '중2병'은
청소년 혐오 표현
- * '개저씨', '개줌마'는
'개념없는아저씨,아주머니'의
줄임말로
중년 혐오 표현
- * 나이든 사람을 이르는
'틀딱이'는 '틀니딱딱'을 줄인
노인 혐오 표현

틀딱-충이 또 난리네.
어우 쏘다. 라떼네~

기성세대는
은근그럴까?



나와 다른 세대와 동행하기

“역시 급식충~”, “어우 폰대, 라떼~” 가 아닌,
우리 라는 마음으로
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군산대



안돼 H
애 H 애!!!

뽕을 담아서

#01 바른말

아직도
장애우?
장애자??

— 장에 사랑을 담다 —

장愛



고운말 '장愛인' 입니다.



손 모양에 담긴 뜻

나눠
보세요 ^^

사랑합니다

수화언어 한마디 나눔

인권앰티켓

함께하는 인권존중 캠페인

